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서영인*

1. 1990년대 문학이 배제한 것
2. 문단문학의 정립과 여성해방문학의 행방
3. 1990년대 여성문학담론의 성격
4. 과잉/과소의 여성문학담론
5.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1990년대 여성문학 담론의 특성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학담론을 구축하고 그것이 대중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 즉 비평장과의 관련 하에서 이 시기 여성문학담론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1990년대 문학지형은 다양한 문학주체의 등장을 특징으로 하는 1980년대 문학의 지형을 지식인/남성/작가 중심의 문학으로 돌려놓는 형태로 구축되었다. 페미니즘 연구자/비평가 집단은 학술장과 문학장이 분리되면서 문학담론 생산을 주도하는 주체로 활동하지 못했다. 이는 여성문학이 1990년대 문학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제되고 분할된 방식으로 당시 비평장에서 기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여성문학의 담론은 주목할 만한 여성작가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성별 구분의 논리를 반복하거나 남성적 논리의 대타향으로 여성성을 정

* 충남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강사.

의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신경숙에 대한 비평의 과잉관심, 공지영에 대한 비평적 외면은 변화된 현실 내에서 이중적 모순을 겪었던 당대 여성 현실에 구체적으로 천착하지 못했던 1990년대 여성문학비평의 한계를 보여준다.

1990년대 여성문학 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현재 문학의 전사로서의 1990년대를 역사적 시야 속에서 재검토하고, 지금 한국문학에 부과된 여성주체 탐구라는 과제를 수행할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여성문학담론, 문단문학, 문학지형, 신경숙, 공지영)

1. 1990년대 문학이 배제한 것

문단이라는 구조는 때로는 아주 고약한 놈 같다. 단(壇)은 약간 높게 한 곳, 또는 특수사회의 한 무리를 일컫는다. 그래서일까. 작가들은 우리 삶이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한때 소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영화에서조차 운동권이 양념처럼 등장하던 때가 있었다. 1980년대 시대에 순응하며 또는 시대에 눈을 감아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역사 앞에서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양 1990년대 들어 더 강렬한 부정으로 1980년대를 얘기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공동체가 해체되고 정신과 규범이 무너지는 시대의 흐름을 틈타 마치 자신을 운동권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기발한 장삿속(독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앞에 진짜 '세기말'의 정신적 빈곤함을 맞보아야 했다.¹⁾

1990년대의 끝 무렵에 계간 『실천문학』에 실린 독자합평회의 한 구절이다. 원고에 실린 소개에 의하면 이 글을 작성한 마창노동자문화회

1) 마창노동자문화회 <참글>, 『독자 합평회』, 『실천문학』, 1999년 봄호, 384쪽.

〈참글〉은 “노동자대투쟁의 결과로 지난 1989년 탄생”한 노동자 문학회로 “노동자의 현실과 생활을 시나 소설, 또는 보고문학으로 창작”해 온 집단이다. 민중문학의 노동자 중심성을 계승했다고 평가받는 『실천문학』에 대해서도 합평회의 독자들은 호의적이지 않다. 독자 합평에 있기 마련인 잡지에 대한 평가나 동감여부보다는 문학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호소하는 데 더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독자의 입장은 “문단이라는 구조”에 대한 불만과 거부의 태도를 표명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특수사회의 한 무리”로 문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작가들과 “우리의 삶이나 생각”과의 괴리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개별적 독자집단의 불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1990년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및 인식의 지평에서 이러한 발언의 의미를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거대이념의 상실과 개인의 내면과 일상 탐구로 정리되어 온 1990년대 문학의 한편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삶과 생각’을 문학으로 창작하는 노동자문학회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전히 기성의 ‘문단’에 대한 불만 속에서도 당대에 생산되는 문학을 읽고 있는 독자였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1990년대 문학 담론의 숨겨진 어떤 영역을 발견하게 된다. 90년대가 노동의 가치나 현실에 무관심했다거나, 문학주체로서의 노동자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대의 현실이나 문학주체를 논하는 단계 이전에, 이들의 존재가 90년대 문학사에서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90년대 문학사에서 이들은 보이지 않으며, 없는 존재이다. 스스로를 ‘독자’라고 명명하는 읽는 주체, 그리고 노동자의 현실과 삶을 문학으로 창작하는 ‘쓰는 주체’이기도 한 그들이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읽는 자’로서도, ‘쓰는 자’로서도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엄연히 존재하였으나 보이지 않았던 이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읽

는 자와 ‘쓰는 자’를 호명하고 보이는 존재들로 당대 문학의 인식들을 구성했던 문학제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문학제도는 어떤 것을 누락시키고 배제하면서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라고 믿도록 만드는 신념체계이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물적 근거들을 포함한다.

90년대 비평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보이는 것들로 구성된 문학제도와 그것이 배제하거나 누락시킨 존재들을, 그리고 그 관계의 역할들을 함께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90년대 문학의 주류적 경향으로 거론되어 온 여성문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여성문제를 다룬 작품들의 양적 확산과 이에 대한 대중의 호응”에 힘입어 “친밀성의 구조 혹은 사적 영역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을 담아내면서 “90년대 문학논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여성문학의 위치를 그것대로 인정하면서, 그러한 여성문학에 대한 담론이 구축되고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여성문학의 부각은 당시 문학의 중요한 특성임에 분명하지만, 그러한 여성문학의 존재를 어떻게 의미화하고 가치 부여하는가의 문제는 당연하게도 자동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택과 배제, 혹은 가치의 혼용과 전도를 통해 구축되고 해석되면서 여성문학 담론이 그 내용을 확정해 나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그 확정의 과정을 다시 검토하는 일은 이미 논리화된 확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전도된 내용들, 누락되거나 축약된 사실들을 추적하는 일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검토는 결국 담론을 만들고 확정된 주체들의 장, 비평장의 존재방식을 고려하는 일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 누락과 배제를 상상하면서 문학사를 재구축하기

2) 김은하 외,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 사회』 10호, 1999, 139쪽.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고, 때때로 그 배후까지 상정하기에 이르면 그것은 일종의 음모론이 되거나 현실적장의 위력을 간과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들의 문맥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틈을 읽고 그 틈에서 생산되는 의미에 주목하는 일은 필요하다. 이러한 읽기의 시도가 기존의 문학사를 달리 읽을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지금 알고 있는 여성문학담론이 어떤 경로로 구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자 한다. 누락과 배제에 대해 말할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90년대의 앞과 뒤를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당연한 것들이 무색해지는 어떤 지점이 그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90년대에 산출된 담론들에 기대어 90년대의 문학지형과 여성문학담론을 읽으려는 이 글의 시도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부분적이지만 당대 담론들을 통해 90년대 여성문학담론의 성격을 충실히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문단문학의 정립과 여성해방문학의 행방

90년대 문학의 성격은 80년대 문학을 대타향으로 설정하면서 규정되었다. 90년대 문학을 정리하는 좌담에서 진정석이 발언한 것처럼 “90년대 문학의 출발을 조건지웠던 근원적인 파토스”는 “80년대에 대한 청산과 단절의 감각³⁾”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대의 문학을 부정하면서 당대 문학의 새로움을 구성하는 것은 굳이 90년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3) 황중연 외, 『좌담-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19쪽.

청산이든 극복이든 그것은 대타항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단절”을 상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80년대와 단절 하면서 90년대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80년대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데 있다. 가령 예의 좌담에서 “이념이라고 얘기됐던 거 대담론의 부재 내지는 사라짐⁴⁾”, 또는 폭압적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과 운동으로서의 문학으로 80년대 문학을 규정하는 순간, 80년대에 등장했던 문학의 다양성과 그 장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온전히 사유되지 못하게 되고 만다.

80년 주요 잡지의 폐간, 언론출판의 자유 억압의 국면에서 개화한 무크지 시대를 새롭게 읽고자 하는 근년의 연구 결과⁵⁾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크지 운동은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강제 폐간 이후의 공백기를 채운 한시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무크지 운동은 기존의 지식인 문학, 서울 중심 문학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문학주체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실체였다. 언론출판의 통폐합,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통제, 강압적 군사통치의 80년대는 또한 그러한 역사적 조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쓰고 말하고 표현할 권리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불러일으킨 시대이기도 했다. 무크지 시대로 통칭되는 80년대 초중반의 시기는 기존의 문학개념이 해체되고 다양한 주체들과 형식들이 분출함으로써의 우리 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다양성과 활력을 보여준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는 “한국문학 내부의 문제들이 노

4) 황종연 외, 『좌담-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20쪽.

5) 1980년대 무크지 운동을 다른 문학, 다른 미적 범주의 창출로 해석하는 연구로 김대성, 『제도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 『인문학연구』 45집, 2011;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1집, 201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정되고, 문학 제도 바깥의 타자들의 욕망이 개진되는 시기⁶⁾라고 읽을 수 있으며, “단일한 의미로 규정되지 않는”, “그 불일치를 통해 ‘문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면⁷⁾”들이 연출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문학주체의 차원에서는 기성 문인과 독자가 구획되지 않는 다양한 ‘쓰는 주체’를 양산하였으며, 문학형식의 차원에서는 기존의 시, 소설 장르로 규정지을 수 없는 보고문학, 수기 등의 문학 형식이 다른 언어와 감수성으로 문학의 범주를 확장시켰다.

여성문학의 주체와 성격을 분명하게 표방한 여성문학 매체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이다. 무크지 시대의 다양성을 채우는 또 다른 문학성의 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사연구회’의 『여성』, ‘또 하나의 문화’가 펴낸 『여성해방의 문학』, ‘민족문학작가회의’가 펴낸 『여성운동과 문학』 등은 ‘여성의 눈’을 잡지 편집의 중요한 동력으로 내세우면서 이전까지 ‘여류’라는 성별 주체로 한정되었던 여성문학을 ‘여성의 현실과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으로 전환시켰다. 이들 무크지는 “여성해방비평이 개진되는 장이자 여성 해방의 이름으로 문학작품이 선보인 문학사 최초의 ‘페미니스트’ 앤솔로지⁸⁾”이기도 했다. 민족·민중 운동에 귀속되거나 동일시되지 않는, 연대하면서도 독자적인 여성적 주체성에 대한 발화, 그

6)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1집, 2013, 98쪽.

7) 김대성, 『제도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 『인문학연구』 45집, 2011, 42쪽.

8)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집, 2017, 20쪽. 이밖에 80년대 여성무크지를 통해 여성해방문학의 계보를 살핀 글로 김양선,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 정치학—1970·1980년대 진보적 민족문화론과 여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1호, 2005; 이해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집, 2016 참조. ‘또 하나의 문화’ 그룹을 중심으로 일상의 정치학이라는 90년대 문학·학술장과의 연관에 주목한 글로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交錯/膠着)』, 『상허학보』 45호, 2015; 고정희의 문학적 발화를 ‘또 하나의 문화’와의 연관 속에서 검토한 글로 조연정, 『1980년대 문학에서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 『우리말글』 71집, 2016 참조.

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전화된 문학을 다시 읽고 새로운 여성문학의 관점을 제시하는 데 이들 여성문학 무크지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러한 무크지 시대의 활력과 풍요는 역설적이게도 1987년 6월 이후 폐간되었던 문학잡지들의 복간이 허용되면서 마감되었다. 1988년 『문학과 지성』이 『문학과 사회』로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동인체제로 출발하고 『창작과 비평』이 복간되면서 무크지 시대는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88년 이후에도 무크지는 계속 발간되었고, 이전의 무크지 시대가 창안했던 새로운 문학의 경향성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1988년 『문학과 사회』의 창간, 『창작과 비평』의 복간은 기존 문학장의 복권, 지식인/남성 중심 문학의 복구, 작가 중심의 문학장의 확대를 예비하는 90년대 문학의 잠정적 출발점이었을 뿐이다.

1988년 복간호를 내면서 『문학과 사회』와 『창작과 비평』은 공히 이 복간이 1987년 6월의 산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학과 지성』이 『문학과 사회』로 제호를 바꾼 것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대한 문학잡지의 역할을 인식한 결과였다.

(『문학과 사회』라는 제호의 의미는) 문학을 문학만으로 보던 관점은 적어도 우리의 80년대에는 사라져야 하고, 문학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생활 세계와의 조망을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는 데 두고 있는 듯 하며, 그래서 앞으로의 편집 방향도 인식과 상상력의 한 뿌리로서 현실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중시하겠다는 태도를 그 제호에서 보여준 듯하다⁹⁾

문학을 문학만으로 보던 관점을 지양하고 ‘현실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중시’하는 지향점은 이후 잡지의 체계에서 사회과학·문화의 학술적 주

9) 『『문학과 사회』 창간사』, 『문학과 사회』, 1988년 봄호, 13쪽.

제들을 특집에 대폭 수용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80년대 사회의 변화를 나름의 방식으로 잡지에 수용하고 있으며 『문학과 사회』, 『창작과 비평』은 87년 이후의 일정 부분 성취된 민주화의 혜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역할을 『문학과 사회』, 『창작과 비평』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90년대 이후의 문학을 구축해 나갔다는 점에 있다. 무크지 시대에 분출했던 기존 문학에 대한 변화에의 욕구, 다른 주체들의 등장과 그들의 문학이 형성해 나갔던 다른 지평들이 이들 잡지에 수용된 것 같지는 않다. 이전에 없던 다양한 주체들의 문학에 대한 '다른' 욕망을 주변화시키면서 문학·사회 운동의 중심을 회귀시키는 구도가 88년 이후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다. 1970, 80년대 문학을 『문학과 지성』 그룹, 『창작과 비평』 그룹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일종의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사정은 이러한 문학잡지 자체의 시스템과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단을 형성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90년대 여성문학 담론의 변천 역시 이러한 문단문학의 형성과 고착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여성』은 3호까지 무크 형태로 발간한 이후 『여성과 사회』로 제호를 바꾸고 정기간행물로 발간된다. 그런데 『문학과 사회』, 『창작과 비평』 복간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정기간행물 등록의 과정이 『여성과 사회』에는 상세히 밝혀져 있어 주목을 요한다.

『여성』 4집으로 출간되어야 할 책이 『여성과 사회』 1호로 나오게 되었다. 출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12 내지는 14개월 간격으로 발간해왔던 『여성』지에 대해 정기간행물로 등록을 하라는 통지를 당시의 문화공보부로부터 받았다. 이에 형식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한참 후에 제출한 서류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말았다. 이유는 『여성』이라는 제호가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정기간행물의 제호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¹⁰⁾

민주화의 성과로 허여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사실상은 부분적인 것이며 거기에는 제약과 간섭이 있었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은 전체 간행물의 관리, 감독의 한 방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여성과 사회』로 제호를 바꾸어 정기간행물로 등록했지만 이것이 “기존의 무크와의 내용적·형식적 일관성을 깨뜨리는 것은 아니”었으며, 『여성과 사회』는 80년대 무크지의 문제의식을 90년대에도 이어나갔다. 매호 기획연재로 게재된 ‘올바른 여성문학의 정립을 위하여’는 90년대 등장한 여성문학의 성과를 비판적 시선으로 일관성있게 주목했으며, 1996년 7호의 여성관련 연구동향, 1999년 10호의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의 비판적 성찰』은 90년대 여성문학연구와 담론에 대한 종합적 정리와 평가로서 그 의미가 크다. 80년대 무크지 시기와의 연속성 속에서 『여성과 사회』는 여성담론을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 당대 사회의 문화·학술장에 개입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내용적 일관성과 그 의미와는 별도로 달라진 문학지형 내에서 『여성과 사회』의 담론이 가지는 위치의 차이이다. 계간지 체제로 굳어진 문학담론 생산의 시스템 내에서 연간으로 발간되는 잡지의 담론이 활발하게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문학평론과 함께 시,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동시에 게재하는 문학지의 체계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어려웠다. 문학장과 학술장의 분리라는 여건 하에서, 비평장 내에서 ‘여성의 눈’과 ‘여성적 정체성’이 주체적인 담론 생산을 감당해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학술장의 영역에서 『여성과 사회』 그룹이 한국 여성문학 연구에 끼친 영향은 크다. 비평장으로의 개입도 적다고 할 수 없는데, 『창작과 비평』, 『실천문학』의 여성문학 관련 원고는 거의 『여성과 사회』 그룹의 비평가들에게 맡겨졌다¹¹⁾. 그러나 문학 계간지에 실린 원고가 『여성과

10) 『『여성과 사회』 발간에 부쳐』, 『여성과 사회』 1호, 1990, 2쪽.

사회』에서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고 겹쳐진다는 점, 이들이 문학비평가로서 비평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비평장의 담론과 소통했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호출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문예지의 체계가 편집위원들의 기획과 출판과의 연관 등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개별 필자로서 지정된 주제를 위해서만 호출된 경우 여성문학담론의 주도권을 형성하기가 힘들다¹²⁾. 90년대 여성문학 논의가 양적인 풍성함과는 별도로 여성에 대한 일관된 시선이나 문제의식에 기반한 기획을 통해 전달되지 못했던 점도 이와 연관이 있다. 이들은 여성문학이라는 한정된 주제에서만 비평가로서 호명되었고, 전체 비평장에서는 소외되었다. 비평장 내에서 여성문학의 위치를 판별하고 그 의미를 확정하는 비평담론의 수행은 부분적으로만 허용되었던 것이다. ‘여성적 정체

-
- 11) 90년대 비평장에서 『여성과 사회』 그룹의 비평가들이 기고한 원고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명호 외,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 1990년 봄호; 김양선, 『근대극복을 위한 여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 1996년 겨울호; 이선옥, 『사랑의 서사, 전복인가, 퇴행인가』,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심진경, 『여성성, 육체, 여성적 시쓰기』,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90년대 『여성과 사회』 필자들과 겹치는 경우만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이상경, 김영희, 전승희 등도 80년대 『여성』을 발간한 여성사 연구회에서 활동했던 필자이므로 넓게 보아 『여성과 사회』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창작과 비평』, 『실천문학』의 여성관련 필자는 거의 전부라도 해도 좋을 만큼 『여성과 사회』 그룹과 겹친다.
- 12) 무크지 『여성』에 대한 서술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 여성해방문학담론에 참여한 필자들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학 제도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비평가/독자를 탄생”시켰다는 의미 부여에서 이들 여성문학 연구자/비평가들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남성 교수/문인/편집자”에 대비되는 “여자 대학원생이거나 무명에 가까운 여성 소장 학자/비평가, 문학 비전공의 여성학자. 마이너 여성 작가”의 신본 구성을 강조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90년대에 이르러 이들은 기존 비평장에 여성문학 비평가로 등장했지만 전체 담론 속에서 비평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역할이 허여되지는 않았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학 제도는 복권되었고, 여성문학 비평가들은 마이너의 위치에서 그 발언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집, 2017, 24쪽 참조.

성'에 입각한 문학해석의 사회적 필요성과 이를 감당할 전문 인력은 증가했으나 90년대의 비평장은 이를 의미있는 변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축되지 못했다.

1994년 겨울 『문학동네』의 창간과 함께 90년대 문단은 명실상부한 '문단문학', 주요 계간지 중심, 작가 중심, 등단한 비평가 지식인 집단의 문학으로 완전히 정립된다. 『문학동네』의 성공과 90년대 문학장의 '문학주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90년대 문학이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른바 '문단문학'으로 완전히 정착되었으며 '여성문학담론'의 성과와 한계 역시 이러한 비평장의 성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만 거론해 두기로 한다.

3. 1990년대 여성문학담론의 성격

90년대를 통틀어 주요 문학지에서 여성문학을 특집으로 다룬 예는 『문학동네』 1995년 가을호,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뿐이다. 여성문학이 1990년대 문학의 특징적 경향이라고 알려진 바와는 사뭇 격차가 있다. 『문학과 사회』는 여성문학을 특집으로 거론한 예가 없으며 『창작과 비평』은 1996년 겨울호에서 여성관련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었으나 과학, 전통, 이론 등을 함께 묶어 논의하고 있어 여성문학 담론을 특징적으로 제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성문학 담론을 90년대의 특징이며 주류적 경향으로 이해하는 흐름은 주로 90년대 여성작가의 약진에 바탕한 작가론의 차원에서 구성되었다고 보는 편이 온당하다.

90년대에 주목받은 여성작가들을 나열하면서 이를 전체의 흐름으로 묶다 보니 아무래도 그 공통성이라든가, 특징도 일반적인 여성성의 범

주 이상을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문학동네』의 ‘여성, 여성성, 여성문학’ 특집의 아쉬움도 이러한 여성성의 범속한 적용에서 기인한다. 박혜경의 『사인화(私人化)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에서는 집단적 등장이라 할 만큼 여성작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중적 호응도 이에 상응한다는 점, 문학출판시장의 변화 등을 근거로 여성문학을 90년대의 대표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성성을 “집단화된 권력지향의 욕망”에 반대하는 “개인의 내밀한 실존적 욕망”에 대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80년대적 문학과 단절과 전환으로 90년대 문학의 의미를 설정하는 논리, 집단/개인, 이념/일상, 현실/내면 등의 전형적인 이분법의 형식을 지지하는 논리로 여성문학이 전유되고 있는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이분법적 문학구도의 설정이 문제인 것은 다양한 문학적 경향과 글쓰기의 성격을 이분법적 구획 속에서 단순화시킨다는 점뿐만 아니라 예컨대 일상·이념, 내면·현실, 개인·사회가 연결되고 관계맺는 다양한 삶의 양식에 대한 고민을 중지시킨다는 데 있다. 여성문학의 경우에도 이분법에서 개인, 일상, 내면 등의 한쪽에 위치됨으로써 개인이 집단 속에서 어떻게 관계맺고 그 개인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지, 일상의 습속 속에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틈입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등등에 대한 사유를 놓치게 되고 만다. 박혜경의 글이 이러한 이분법의 구획 속에서 절반의 지점만을 투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을 여성으로 규정짓는 “‘여성다움’의 성적 이데올로기를 강요해온 사회적 관습에 대한 억압과 저항의 심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¹³⁾에 대한 해석은 ‘내면’이나 ‘일상’에 머무르지 않는 여성적 정체성 규명의 중

13) 박혜경, 『사인화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네』, 1996년 가을호, 25쪽.

요한 현실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성에 대한 의미부여가 '상징계적인 타자성의 세계'로서의 남성성과 그 대척점으로서의 '상상계적 공간', '충일하고 조화로운 원초성의 관계로 감싸안은 제도권 너머의 동그런 모성적 원의 공간'으로 구획된 곳에 놓인다면, 구태여 90년대적 여성성의 의미를 찾는 일이 무색해지고 만다. 이런 식의 남성성/여성성 구별은 본질론적인 성별 정체성 논의로 귀속되는 일종의 환원론으로서 특정 시공간에서 경험하는 여성의 현실, 체험과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여성성의 현실적 기반을 탐색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한다.

같은 특집에서 우찬제가 “훼손된 현실을 유기적 손길로 어루만지며 어두운 혼돈을 버텨기는, 그러면서 훼손 이전의 살아 있는 유기적 전체를 그리워하는 여성성의 궤적¹⁴⁾”으로 당대 여성문학을 의미화할 때, 황중연이 ‘전설의 우물’이라는 상징으로 “풍요로운 여성적 창조성¹⁵⁾”을 읽으려고 할 때, 여성에 대한 전통적, 고정적 이미지는 강화된다. “모성을 숭배하는 낭만적 습벽”을 경계하면서도 “여성문화의 전통을 새롭게 천착하고 포용하는 일로부터 여성적 창조성의 충만한 비전이 나타나온다는 비전¹⁶⁾”을 찾는 이율배반은 여전히 전통적 여성성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여성문학의 지향을 “대타의식에서 대자의 식으로의 전환”, 즉 “가족, 남성, 교육, 제도 등의 여성 외재적 요인에 앞서 순연한 여성 내재적인 상상력의 추동을 도모¹⁷⁾”하는 것에서 찾을 때, 이는 여성억압의 현실을 외면하고 수동적이고 운명적인 여성성의 수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는 90년대 여성문학 논의를 비판적으로 점검한 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여성이 처한 복합적 현실을 고

14) 우찬제, 『타나토스/에로스/에코스』, 『문학동네』, 1996년 가을호, 82쪽.

15) 황중연, 『여성소설과 전설이 우물』, 『문학동네』, 1995년 가을호, 61쪽.

16) 황중연, 『여성소설과 전설이 우물』, 『문학동네』, 1995년 가을호, 61쪽.

17) 우찬제, 『타나토스/에로스/에코스』, 『문학동네』, 1996년 가을호, 108쪽.

려하지 않고 근대의 위계적 성별 이분법을 우열의 자리를 바꾼 채 복제함으로써 여성문학을 협소화하는 부정적 결과¹⁸⁾”로 이어질 수 있다.

90년대 여성문학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실천문학』 99년 여름호의 특집은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제¹⁹⁾”로서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비판, “여성의 존재조건의 사회적 연관성²⁰⁾”, “자본주의적 삶 속에서의 여성의 육체가 갖는 모순적 의미와 그 가능성²¹⁾”을 비평의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문학의 현실연관에 한 발 다가 있다. 이는 모성성이나 관계성에 대한 여성문학의 천착이 본질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의 고정적 이미지에 기댄 것이 아니라 현실적 연관, 즉 모성과 생명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본질이나 권력적 위계로 상대를 타자화하는 현실사회의 관계성의 폭력이라는 조건 하에서 형성되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관점이다. 과거로부터 오랜 기간 존속되어 온 여성성이 본질론이 아니라 늘 현실의 조건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위계관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몸을 바꾸면서 고착되어 왔음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되는 근거들이 얼마나 90년대의 여성현실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자본주의적 질서를 유지하는 사랑의 이데올로기나 공/사 영역의 구분과 남성성/여성성의 분할과 자본주의 체제와의 연관 등은 80년대 『여성』의 시기부터 이미 여성의 존재조건을 결정하는 경제적 토대로서 거론되어 온 내용이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당대의 여성현실과 아주

18) 김은하 외,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 사회』 10호, 1990, 140쪽.

19) 이선옥, 「사랑의 서사, 전복인가, 퇴행인가」,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41쪽.

20) 이상경, 「시대의 부채의식과 여성적 자의식에서 출발한 1990년대 여성소설」,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45쪽.

21) 심진경, 「여성성, 육체, 여성적 시쓰기」,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77쪽.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육박하는 당대의 현실성과 여성성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충분치는 못했던 것 같다. 가령 소비사회에서의 여성의 타자화나 상품화의 부분, 또는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와 떨어질 수 없는 대중성과의 관계문제 등도 90년대 여성문학이 밀착해서 검토해야 할 현실 중 하나였다. 대중성은 상업주의나 문화산업의 영향²²⁾ 뿐만 아니라 90년대 페미니즘 세례를 받은 여성독자와의 공감과 소통의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조건에 대한 당대적 천착 문제보다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서 더 아쉬운 것은 여성문학의 정체성이 당대 문학 전반을 해석하는 비평적 논리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90년대 문단문학의 환경 하에서 작가중심의 논의는 여성문학을 여성작가의 문학에 등치시킴으로써 여성문학담론을 성별 구분의 한 양상으로 머물게 했다. 물론 여기에서 여성문학은 성별 구분의 의미로서의 여류의 규정을 넘어서 여성적 정체성을 표상하고 구체화하는 여성작가의 존재론을 부각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첫째, 주로 여성작가의 문학에만 '여성성' 논의를 한정시킴으로써 여성작가의 문학이 내포한 다양한 의미와 변주를 충분히 의미화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여성성' 문제를 당대 문학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의식으로 넓혀 나가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성별구분에 작동되는 젠더적 이미지의 활용이나 전유가 여성작가의 문학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닐 텐데, 유독 여성문학담론은 여성작가의 문학에만 집중되었다. 이는 『여성』 1호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에서 남성작가들의 정전에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읽어낸 것이나, 90년대 벽두에 “90년대 민족문학을 위한 제언”이라는 특집에서 노동문학을 비롯한 80년대 문학 전체를 여

22) 이선옥, 『사랑의 서사, 전복인가, 퇴행인가』,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성의 시선에서 조망했던 시도²³⁾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문학 담론의 양상은 문단문학의 체계 아래 개별 작가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여성문학 연구/비평의 자양분이 비평장 속에 활력있게 개입될 수 없었던 당시 비평장의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4. 과잉/과소의 여성문학담론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 비평장에서 여성문학은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지만, 그것이 한국문학의 여성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보다는 개별 여성 작가의 약진과 그에 기댄 논의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이는 문학담론이 문학에 대한 해석을 텍스트 내부에 두고, 비평장에서 채택된 주요 작가들 중심으로 신비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90년대 여성문학이 비평장 내에서 의미화되는 과정을 이러한 개별 작가론, 작가중심주의에 폐쇄된 담론들 사이의 행간, 개별 작가들의 문학을 당대 비평이 채택하고 해석하는 논리의 축을 통해 더 면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90년대 비평장에서 가장 빈번히 호명된 작가인 신경숙, 그리고 그 문학적 성과에 비해 비평적 관심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던 공지영에 대한 비평을 통해 90년대 여성문학 담론이 당대 비평장에서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90년대 여성문학논의에서 가장 비평적 관심이 집중된 작가는 단연 신경숙이다. 주요 문학지의 성향과 무관하게 신경숙은 비평적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담론에 참여한 비평가는 남성 비평가와 여성 비평가를 가리지 않는다. 여성적 정체성, 글쓰기에 대한 주제는 물론이고 백낙청으

23) 이명호 외,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 1990년 봄호.

로 대표되는 리얼리즘론에서도 신경숙은 90년대의 중요한 성과로 거론되었다. 『여성과 사회』 그룹의 여성 비평가들도 신경숙의 관계성이나 친밀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1990년대 초의 남성 평론가들은 1980년대식 ‘노동’과 ‘지성(글쓰기)’의 분열에서, 신경숙식 소설을 통해 뭔가 새로운 점을 보려 했다²⁴⁾”는 평가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는 90년대 말미에 이성욱이 지적한 바대로 진영과 입장을 막론하는 일종의 신드롬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90년대 문학지형의 민감한 ‘센서²⁵⁾”이기도 하다.

이성욱은 신경숙이라는 ‘센서’가 “90년대 문학과 비평의 성격, 그리고 그것의 메커니즘”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의 전개로 미루어 이 ‘센서’는 90년대 비평의 문제로 지적한 ‘텍스트 고립주의’, ‘비평의 자의식 부재’, ‘상업주의’ 등과 연관된다고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90년대 문학의 대표작가로 떠오른 신경숙 문학이 여성문학 담론과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외딴방』의 연재와 출간, 그리고 비평적 상찬을 통과하여 신경숙은 90년대 대표작가로 확고한 위치를 얻었지만 시작은 이미 이전의 화제작인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 비롯되었다. 90년대발 한국문학의 위기, 혹은 전환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신경숙이 ‘여성문학 담론’과 관련하여, 혹은 한국문학장 전체와 관련하여 어떤 맥락에서 호명되었는가를 살피기 위해 이 시기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3년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가 출간된 직후 『창작과 비평』에 발표된 신승엽의 「성찰의 깊이와 기억의 섬세함²⁶⁾」, 『여성과 사회』에 발표된 강

24) 천정환,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 『역사비평』, 2015년 가을호, 289쪽.

25) 이성욱, 「비평의 길」, 『문학동네』, 1999년 가을호, 400쪽.

26) 신승엽, 「성찰의 깊이와 기억의 섬세함」, 『창작과 비평』, 1993년 겨울호.

미숙·김양선의 『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²⁷⁾은 신경숙의 문학에 대한 ‘여성문학적 관점’이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90년대 비평장에 등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신경숙과 김인숙의 근작을 중심으로』은 『여성과 사회』가 여성문학 정립을 위해 기획한 비평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이다. 여성문학 비평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심사가 서두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두드러지는 항목은 “사회변혁적 관심과 여성해방의 가능성을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시각”에 대한 경계이다. 여성문학이 ‘여성문제를 자립화시킨다는 비판과 ‘사소한 일상사의 문제’를 다룬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여성문제/일상사’의 전체적 연관이 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경숙의 문학이 지닌 미덕은 우선 “우리 삶 속에서 여성들이 처하는 이런저런 복잡하고 고단한 형편²⁸⁾에 대한 깊이있는 시선과 섬세한 형상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덕에 근거하여 “여성들은 각기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에 충실함으로써 그 삶이 진지성을 획득²⁹⁾”하고 있다는 점을 고평하게 된다. 농촌 공동체 사회의 가부장제 가족의 상투적 성역할을 넘어서는 다양한 여성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들어내는 구체성을 성실하고도 섬세하게 그려냄으로써 신경숙의 소설은 우리 문학 속에 여성적 삶의 다채로움을 구현하는 인물들을 등재시키며, 이 평론이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은 이 지점이다. 그러나 이 평론은 이러한 여성들의

27) 강미숙·김양선, 『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신경숙과 김인숙의 근작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5호, 1994.

28) 강미숙·김양선, 『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신경숙과 김인숙의 근작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5호, 1994, 146쪽.

29) 강미숙·김양선, 『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신경숙과 김인숙의 근작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5호, 1994, 148쪽.

삶의 구체성이 타인과의 관계맺음, 전체와의 연관에 이르지 못하고 추상적인 내부세계로 침잠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전체와의 연관이라는 관점으로 신경숙 문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승엽의 글은 앞의 글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체와의 연관은 이를테면 민족문화와 리얼리즘 문학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논의된다. 즉 이른바 민족문화의 위기를 불러온 총체성의 도그마를 극복하기 위해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 즉 ‘일상적인 현실에 밀착’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억을 통해 섬세하게 복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경숙의 문학은 의의를 가지지만, 그것이 “더 넓은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앞의 평론이 평가한 신경숙 문학의 가치와 엇갈리는 지점을 낳는데 그것은 신경숙의 문학을 ‘새로운 총체성의 형상화’에는 미달된,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거쳐야 할 일종의 단계로 놓는다는 점이다. “개인의 고유성을 화석화된 총체성으로부터 해방하는 일, 그것이 새롭게 총체적인 형상화의 길을 개척하는 첫 발자국³⁰⁾”이라는 논평에서 이러한 관점이 드러난다. ‘일상사를 형상화하는 ‘기억과 글쓰기의 섬세함’은 여성문학적 관점에서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 존재해야 했던 여성인물들의 복합적 반응을 포착³¹⁾”했다는 점에서, 민족문화론의 입장에서는 화석화된 총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총체성을 위한 전단계라는 점에서 각각 다르게 의미화된다. 그렇다면 90년대 신경숙 문학에 집중된 비평적 관심은 개인/여성/여공이라는 사회적 타자들의 주변화된 삶에 대한 섬세한 복원이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그것을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사회의 체제에 균열을

30) 신승엽, 『성찰의 깊이와 기억의 섬세함』, 『창작과 비평』, 1993년 겨울호, 109쪽.

31) 강미숙·김양선, 『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신경숙과 김인숙의 근작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5호, 1994, 143쪽.

내는 여성적 삶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해석하려는 지향과, 리얼리즘의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총체성의 구현을 향한 기초적 작업으로 삼으려는 지향이 쟁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평론이 “농촌공동체의 삶의 윤리”를 배경으로 하였을 때 신경숙 소설의 장치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에 공히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당대 삶의 현재적 관심사와 연결될 논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³²⁾은 지적해 둘 만하다. 이는 이후 신경숙 문학에 대한 비평적 충돌과 습합이 자주 은폐하거나 외면해야 했던 지점이기도 하다.

신경숙 문학에 대한 이러한 비평적 관점의 차이는 이후 크게 ‘여성성’에 대한 논의와 ‘리얼리즘적 글쓰기’의 갈래로 나뉘어 전개된다. ‘여성성’에 대한 논의가 “남성중심적인 힘의 논리”에 대별되는 “개인의 내밀한 실존적 욕망³³⁾”으로 드러났다면, ‘리얼리즘적 글쓰기’의 논의는 “이야기를 진실되게 해내려는 서사적 노력³⁴⁾”이 리얼리즘적 전형성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로 드러난다. 앞의 여성성 논의가 80년대와 90년대를 구분하고 남성적/여성적, 이념/개인의 이분법을 고착화시켰다면 뒤의 리얼리즘 논의는 진실한 재현을 위한 서사적 노력을 새로운 리얼리즘론을 위한 기본원리로 내세우는 입장을 대변한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기왕의 리얼리즘론에 대한 반성과 진실한 재현을 위한 절실한 노력은 80년대의 이념과 개인의 내밀한 실존이라는 대비법과 병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

32) 이에 대해서는 ‘모성’, ‘전통적 여성상’, ‘가족 이데올로기’ 등으로 신경숙의 소설을 평가함으로써 도시 체험, 자본주의 근대 체험과의 연관 등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김양선, 『근대극복을 위한 여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 1996년 겨울호 참조.

33) 박혜경, 『사인화(私人化)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정체성 찾기』, 『문학동네』, 1996년 가을호, 23쪽.

34) 백낙청, 『『외판방』이 묻는 것과 이룬 것』, 『창작과 비평』, 1997년 가을호. 인용은 백낙청,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작과비평사, 2006, 274쪽.

는데, 이에 대한 차별적 논의나 충돌 없이 신경숙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봉합한 것이 “90년대 문학지형의 민감한 센서”로서의 신경숙을 있게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경숙이 수행한 ‘가부장제 내의 여성현실에 대한 다면적 포착’, ‘당대 삶의 현재적 관심사와의 빈약한 연결’이라는 여성문학으로서의 문제성은 정당하게 추적되지 못했다.

1993년은 90년대 여성문학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와 김인숙의 『칼날과 사랑』이 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여성문학의 부상을 대중적으로 입증한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출간된 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경숙과 김인숙의 소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고평되면서 90년대 내내 여성문학의 대표적 성과로 거론된 것에 비해 공지영의 문학은 그 화제성에 비해 지나치다 싶을 비평장에서 소외된 예에 속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뿐 아니라 『고등어』와 같은 베스트셀러를 연이어 출간한 바 있고 80년대 운동권 세대의 체험에 대한 의미있는 성찰을 보여준 『인간에 대한 예의』의 작가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작품의 완성도는 차치하더라도 90년대 여성문학과 관련하여 공지영은 비평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다.

공지영에 대한 비평적 무관심은 예컨대 “지난 시절에 대한 회고적 감상주의가 진정한 성찰을 알지 못한 채 대중적 흥미 차원의 알리바이로 나타³⁵⁾난다는 평가에서 그 근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993년의 화제작인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와 김인숙의 『칼날과 사랑』을 논하는 지면에서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과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³⁶⁾를 페미니즘의 대중적 관심을 증명하는 예

35) 우찬재, 『타나토스/에로스/에코스』, 『문학동네』, 1996년 가을호, 93쪽.

36) 강미숙·김양선, 『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신경숙과 김인숙의 근작을 중

로 거론한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공지영의 소설은 통속성이나 대중성의 차원에서 예시될 수는 있으나 비평적 분석의 본격적 대상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지영의 문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여부를 떠나서 공지영 문학은 1980년대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여성 후일담의 서술³⁷⁾이라는 차원에서 여성문학의 역사적 (불)연속성을 검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90년대 여성문학의 독자와의 관계를 비롯한 대중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더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90년대 문학의 ‘대중성’에 대한 강박적 거리두기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90년대 문학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서영채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바대로 90년대의 문화적 특성 중 하나가 “대중문화의 엄청난 약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전반을 뒤덮고 있는 산업적 마인드”로 당시의 문화를 지배했다. “80년대의 문화적 담론이 민주화 투쟁이라는 뜨거운 전장에서 형성되었다면, 90년대의 문화적 논리는 거대한 시장에서 구현³⁸⁾”되었던 것이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였다는 1990년대의 시대규정 하에서 90년대 문학은 문학 자체의 고유성, 특수성을 주장하는 일종의 문학주의가 지배한다. 이는 한편으로 대중문화의 전면적 지배 속에서 문학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었고, 그리하여 한편으로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세계 안에서 ‘문학성’을 문학 고유의 상품성으로 내세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어쨌든 대중문화의 지배 논리 하에서 상품으로서 각광받는 문학작품에 대한 거리두기는 역설적으로 문학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90년대 문학의 특

심으로], 『여성과 사회』 5호, 1994, 140쪽.

37) 이에 대한 연구로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3호, 2010 참조.

38) 서영채, 『냉소주의, 죽음, 매저키즘: 90년대 소설에 대한 한 성찰-신경숙, 윤대녕, 장정일, 은희경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동네』, 1999년 겨울호, 407쪽.

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90년대의 문학이 창출한 ‘내면성’의 개념을 두고 “시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안전한 내면은 진정 그것에 저항하는 근거지인가³⁹⁾”라는 물음에 빗대어 말하자면 대중문화의 약진 속에서 대중으로부터 자유로운/안전한 문학이라는 것이 가능했는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오히려 대중에 대한 무관심으로 문학성에 대한 신뢰를 키워 온 90년대 문학비평은 자본과 대중이 장악한 현장 속에서의 현실적인 주체를 놓쳤으며, 이에 호응했던 대중에 대한 교섭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지영의 비평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공지영의 문학에 대한 비평적 무관심은 “80년대 여성운동, 그리고 87년의 역사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의식을 획득한 여성들의 존재⁴⁰⁾를 문학장 내에서 제외시켰고, 그로 인해 이러한 여성주체들에 공감을 투사하는 당대의 대중 독자들과 호흡하면서 당대 문학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쳤다고 할 수 있다.

공지영을 90년대 여성문학의 중요 작가로 거론한 거의 유일한 평론인 이상경의 『시대의 부채의식과 여성적 자의식에서 출발한 1990년대 여성소설』⁴¹⁾은 이러한 논의와 연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선옥, 공지영, 김인숙을 중심으로 1990년대 여성소설의 성과를 짚고 있는 이 평론은 198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여성들이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에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 그리하여 그들이 마주한 당대 여성의 현실에 대한 문학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당대의 여성문학이 “우리 시대 여성의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박진해 들어가야⁴²⁾”한다는 요구에 입각

39)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50집, 2016, 551쪽.

40) 김경연, 『87년 체제와 한국 여성문학의 변화』, 『한국문학논총』 제49집, 2008, 197쪽.

41) 이상경, 『시대의 부채의식과 여성적 자의식에서 출발한 1990년대 여성소설』,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42) 이상경, 『시대의 부채의식과 여성적 자의식에서 출발한 1990년대 여성소설』, 『실

한 대상의 선정이며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지영의 문학은 “남성중심제도에 대한 항의와 분노뿐만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의 여성의 상황을 그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공지영의 문학이 이룬 성취와 그에 대한 대중적 호응이 진정 ‘남성중심제도에 대한 항의’보다 ‘여성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남성중심제도’와 ‘여성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처럼 선명하게 나뉘어서 후자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오히려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남성중심제도’가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 가부장적 남성들과 생활적으로 충돌하면서 실감을 얻게 되는 복합적 상황에 대한 자각이 이 소설을 밀고 나가는 동력이 아니었던가 하는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이는 ‘90년대 여성작가’의 공과를 짚어보는 것으로 특집을 꾸린 『실천문학』 지면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다. 여성작가의 소설을 다룬 평론은 이선옥의 『사랑의 서사, 전복인가 퇴행인가』와 이상경의 평론으로 나누어 구성되는데 앞의 것은 사랑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인의 소통불가능성과 성별 사회화의 관계를 주제화하고 있다면 뒤의 것은 80년대의 역사를 기억하는 90년대 여성들의 자의식과 사회적 존재성을 주제화하고 있다. 관계와 소통이 주로 사적 세계의 기반을 이룬다면, 역사적 체험과 사회적 진출이라는 모티브 속에서 전개되는 후자의 것은 공적,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이들의 기억을 다룬다. 개인적 삶과 사회적 제도의 상호침투와 연관, 그 속에서의 여성적 주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구분은 당대 여성문학 담론이 사적/공적 세계의 분할에서 멀리 나아가

천문학』, 1999년 여름호, 44쪽.

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려 준다.

‘대중문화의 약진’이라는 시대적 규정에 기대어 90년대 대중문화에 대한 분석을 참조해 보자. 1990년대는 경제호황과 함께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사회진출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시대이기도 했다. 당시 영화와 광고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한 ‘신세대 여성’, ‘신세대 주부’, ‘미시족’, ‘커리어 우먼’과 같은 새로운 여성 주체상은 그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은 “여성 노동력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통제가 강해지고 노골적인 배제보다는 자발적인 예속을 유도해내는 가부장체제의 새로운 국면”, 즉 “공적 가부장제⁴³⁾”의 체제에 구속된 것이었다. 사회체제의 재생산 전체가 가부장제의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1990년대의 시점에서 여성이 겪는 사회적 주체로서의 자의식은 사적/공적 생활이 구분되지 않는 전면적인 가부장주의, 남성중심주의와 싸우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는 물론 소비주체로 호명되면서 자본주의적 재생산 체제에 적극적으로 유입되었던 여성 주체의 복잡성과 자기분열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에서이다. 공지영에 대한 비평의 외면은 1990년대 여성현실의 당대성과 관련하여 당시 여성문학 비평이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보여주며 이는 현재의 여성문학 비평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43) 공적 가부장제와 90년대 여성의 주체상에 대해서는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한 국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페미니즘과 그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참조.

5. 결론

이 글은 표면적으로 1990년대가 여성문학이 문학의 주류로 떠올랐다는 문학사적 평가를 재고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는 1990년대 문학의 중요한 주체이며 의제였던 여성작가나 여성문학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성작가가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로 다수 거론되었고, 여성성은 1990년대 문학의 대표적 특성으로 논의되었지만 정작 당시 비평장 내에서 여성문학 논의는 상당히 한정적이었던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는 1990년대 여성문학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당대 비평장의 구축과 문학논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담론 장 내에서 여성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주지하다시피 80년대와의 단절은 1990년대 문학을 끌고 갔던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방향은 물론 사회주의권의 몰락, 87년 혁명의 정치적 좌절,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대와 상업화 논리의 지배라는 당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적인 것과의 단절이라는 90년대 문학의 화두는 80년대 문학의 다양한 주체성과 글쓰기의 욕망을 소거하고 지식인/남성/비평가 중심의 문학장으로 재편되는 결과를 낳았다. 무크지 시대의 주체성들은 88년 복간된 『문학과 사회』, 『창작과 비평』 등의 주요 문학지 체제에서 배제되었고 『또하나의 문화』, 『여성』으로 대표되는 80년대의 페미니즘적 운동과 문학적 자양분 역시 학술장과 문학장의 분리, 여성문학적 문제의식의 제한적 호출이라는 방식으로 90년대 문학장에서 배제·분할되었다. 작가 중심, 텍스트 중심의 문단문학의 구축은 이러한 90년대적 문학장의 최종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여성문학의 담론 역시 주목할 만한 여성작가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성별 구분의 논리를 반복하거나 남성적 논리의 대타항으로 여성성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특히 90년대 들어 변화된 사회적 환경 내에서 ‘공적 가부장제’의 체제 하에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젠더적 모순을 겪었던 당대 여성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그에 대응하지 못했던 추상성은 1990년대 여성문학의 중요한 한계로 남을 것이다. 이는 당대 비평에서 과잉호출된 신경숙, 대중적 호응에도 불구하고 비평적으로 외면당했던 공지영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신경숙에 대한 비평장의 집중적 관심은 가부장제 내에서의 여성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민감한 포착과 내면성애의 천착을 발판으로 새로운 리얼리즘을 구상하려는 욕망 사이에서 부유했다. 신경숙 문학의 여성주의적 가치와 한계는 더 예민하게 평가되고 해석될 필요가 있었으나 90년대 문학장은 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지영에 대한 비평적 외면은 80년대를 통과하여 90년대에 사회적 주체로서의 여성적 자의식을 정립했던 세대의 역사를 충분히 담론화하지 못했고, 당대 여성들의 현실에 기반한 대중성에 비평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남긴다.

90년대 여성문학 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현재 문학의 전사로서의 90년대를 역사적 시야 속에서 재검토하고, 지금 한국문학에 부과된 여성주체 탐구라는 과제를 수행할 출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분과위원회, 『여성운동과 문학』 1, 실천문학사, 1988.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분과위원회, 『여성운동과 문학』 2, 풀빛, 1990.
여성사 연구회, 『여성』 2호, 창작사, 1988.
여성편집위원회, 『여성』 1호, 창작과비평사, 1985.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지성사, 1993.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문예마당, 1993.
그 외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 『실천문학』, 『창작과 비평』 등 90년대 문학잡지 다수.

2. 논문과 단행본

- 강미숙·김양선, 『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신경숙과 김인숙의 근작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5호, 1994, 140-163쪽.
김경연, 『87년 체제와 한국 여성문학의 변화』, 『한국문학논총』 제49집, 2008, 191-238쪽.
김대성, 『체제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 『인문학연구』 45집, 2011, 31-49쪽.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1집, 2013, 83-104쪽.
김양선, 『근대극복을 위한 여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 1996년 겨울호, 136-154쪽.
_____,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 정치학—1970·19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여성 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1호, 2005, 154-181쪽.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3호, 2010, 43-78쪽.
_____,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집, 2017, 15-45쪽.
김은하 외,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 사회』 10호, 1999, 139-161쪽.
박혜경, 『사인화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네』, 1996년 가을호, 1-19쪽.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50집, 2016, 547-585쪽.
백낙청, 『지구시대의 민족문학』,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2006, 31-69쪽.
_____, 『『외판방』이 묻는 것과 이룬 것』,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2006, 269-292쪽.

- 서영채, 『냉소주의, 죽음, 매저키즘: 90년대 소설에 대한 한 성찰-신경숙, 윤대녕, 장정일, 은희경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동네』, 1999년 겨울호, 406-445쪽.
-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交錯/膠着)』, 『상허학보』 45호, 2015, 117-159쪽.
-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한국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페미니즘과 그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47-88쪽.
- 신승엽, 『성찰의 깊이와 기억의 섬세함』, 『창작과 비평』, 1993년 겨울호, 92-109쪽.
- 심진경, 『여성성, 육체, 여성적 시쓰기』,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61-86쪽.
- 우찬제, 『타나토스/에로스/에코스』, 『문학동네』, 1996년 가을호, 80-110쪽.
- 이명호 외,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 1990년 봄호, 48-74쪽.
- 이상경, 『시대의 부채의식과 여성적 자의식에서 출발한 1990년대 여성소설』,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43-59쪽.
- 이선옥, 『사랑의 서사, 전복인가, 퇴행인가』,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27-42쪽.
- 이성옥, 『비평의 길』, 『문학동네』, 1999년 가을호, 390-411쪽.
- 이혜령, 『빛나는 성취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집, 2016, 409-450쪽.
- 조연정, 『1980년대 문학에서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 『우리말글』 71집, 2016, 241-273쪽.
- 천정환,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 『역사비평』, 2015년 가을호, 278-299쪽.
- 황중연, 『여성소설과 전설이 우물』, 『문학동네』, 1995년 가을호, 1-18쪽.
- 황중연 외, 『좌담-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11-80쪽.

Abstract

Topography of Literature in the 1990s and the Discourse of Feminist Literature

Seo, Young-I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essay is to demonstrate the features and meaning of discourse in feminist literature in the 1990s. This essay scrutinizes the features of discourse in feminist literature, specifically relating to the 'literary criticism field' which constructs literary discourse and exerts its public and social influences on the whole process of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literature.

The topography of literature in the 1990s was one of change from the featuring of various subjects that was prevalent in the 1980s towards intellectual, male-centered literature. Feminist research and critic groups of the 1980s could not play a leading role in producing literary discourse in the 1990s. This meant that feminist literature, despite its emergence as a significant subject in the literature of the 1990s, was met with 'exclusion' and 'separation' in its entry to the field of literary criticism. Notwithstanding the appearance of some remarkable female writers, the discourse on feminist literature only repeated the logic of pre-existing gender separation or defined 'femininity' only as a counterpart of masculinity. Too much attention of literary criticism field on Shin, Kyeong-Sook and too much disregard from the field on Gong, Ji-Young shows the limitations of criticism of feminist literature in the 1990s in that it could not delve concretely into the reality of the women of the time.

Through a critical approach on the discourse of feminist literature, this essay can reexamine the 1990s from a historical viewpoint and confirm the start point to perform the task of researching female subject assigned to the present Korean Literature.

(Keywords: discourse of feminist literature, circle-literature, topography of literature, Shin Kyeong-sook, Gong Ji-young)

40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논문투고일 : 2018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5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5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5월 15일